

# 한의사 X레이 사용 놓고 의사-한의사 충돌



▲ X레이를 사용한 폐 검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법안 통과를 두고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가 각각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입법예고 기간에만 1만 7천여 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쏟아졌다.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책임자'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부령은 그 자격을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할 경우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가 개설한 한의원에서도 한의사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X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는 의료법상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23일에는 서영석 의원 지역구인 부천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반면 대한한의학협회는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미 지난 2월 수원지법이 X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X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 '대법관 26명' 사법개혁안 발표

## 민주당 특위, 연합부 2개 신설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내놓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법원 운영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구상은 대법관 증원뿐 아니라, 전원합의제 외에 '연합부' 2개를 신설해 지금의 전합과 비슷한 규모로 운영하는 것이다. 백혜련 사법특위 위원장은 "모든 대법관이 논의에 참여해 판결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면서도, 두 개의 전합을 통해 신속한 상고심 처리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구조가 도입되면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는 3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전체 대법관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2명 증원된다. 다만, 1·2연합부의 구체적 구성 방식이나 대법원장이 두 연합부에 모두 포함되는지 등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구상은 단일 전원합의제를 유지하되, 독일과 프랑스의 대재판부나 연합부 제도를 참고해 혼합형으로 운영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프랑스는 사법·행정 이원제를 채택해, 사법 분야의 최고 법원인 '과기원'이 민사·상사·형사 등 6개 재판부로 구성된다. 이 중 최소 13명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으로 구성된 연합부가 법령 해석을 담당한다. 독일의 연방일법원 역시 여러 재판부가 있고, 법령 해석 통일을 위해 대재판부를 설치하지만 실제 운영은 극히 드물다.

이번 개혁안에는 법관 평가제도 개편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평가를 법관 인사평가에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부위원 중심의 별도 평가기구를 설치하는 기존 구상보다 한발 물

러선 형태다. 그러나 사법부 내부에서는 "당사자 대리인 변호사가 판사를 평가하는 것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발이 적지 않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은 이날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정청래 대표가 강한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4심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재판의 무오류성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확대할 수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 환율 1440원 돌파, 6개월 만에 최고치

##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불확실성 원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원화 가치가 또다시 하락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40원을 돌파하며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종가는 전날보다 9.8원 오른 1,439.6원으로 마감됐다. 오후 1시에는 한때 1,441.5원까지 치솟아 지난 4월 29일 수준과 같았고, 장중 1,440원을 넘은 것은 지난 5월 2일 이후 처음이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고환율 상황



▲ 23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달러·원 환율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을 고려할 때 시장의 예상대로였지만, 금통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이 향후 8년간 매년 250억달러씩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시장 불안을 자극했다. 직접 투자 규모가 2,000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외환시장 충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환율 상승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도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는 38.12포인트(0.98%) 하락한 3,845.56으로 마감했으며,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4,072억원을 순매도했다.



라미라다 마살몰에 위치해 있습니다

## 스타플러스 (StarPlus) 덴탈

가족을 치료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진료

임플란트 / 신경치료 / 크라운 / 부분틀니 / 오버덴처

임플란트 \$1,200 부터  
크라운 \$500 부터

피보험자 무료상담



ALL PPO, ASTIVA, CLEVER CARE, ANTHEM, LIBERTY, IMPERIAL, MEDI-CAL, IEHP, MOLINA

# T.714.576.5257

15862 Imperial Hwy., La Mirada, CA 90638  
화, 금, 토요일 오픈합니다 (월-토 전화상담) 9AM - 6PM